

# 군산, 백년대계 선도 도시 도약

### ‘특례추진단 구성’... 특례 발굴사업 구체화 · 실행력 확보

### 현장형 특례 발굴... 지역발전 걸림돌 해소 · 시민 체감도 제고

군산시가 지난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서 발표한 ‘전북특별법 활용 군산시 발전전략 3대 분야, 6대 전략, 12개 대표사업’에 대한 특례추진단을 구성해 부시장 주재로 특례 발굴사업에 대한 구체화 및 실행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33개 특례 실행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는 만큼 군산시 역시 글로벌 신산업 · K-문화관광 거점 도시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인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도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농생명산업 거점과 더불어 6대 전략을 주축, 12개 대표사업들

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육성과 관련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 · 품질 인증 특례, 새만금 해양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새만금고용특구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사업의 하반기 도와 함께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특례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K-문화관광 도시라는 비전에 따른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 국립 수중고고학 센터 건립, 서해안편 아간경

관거점벨트 조성 등 다양한 관광관련 초로 밤이 아름다워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원예 및 친환경 대체식품 소재 클러스터(대체식품, 원예),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농생명지구 내 규제완화로 인한 전후방사업 연계 강화, 지역농업과 연계한 K-맥주 등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가 새싹이 움트는 봄을 맞아 부사관학교 후보생을 대상으로 익산 일리기에 한창이다.

## ‘부사관학교, 익산 여행을 명 받았습니다’

### 시, 18~19일 육군 부사관학교 후보생 220명 대상 시티투어 진행

익산시가 새싹이 움트는 봄을 맞아 부사관학교 후보생을 대상으로 익산 일리기에 한창이다.

시는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육군 부사관학교(소장 정덕성) 후보생 총 220명을 대상으로 익산 여행을 진행했다. 지난 3일에는 익산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부사관학교 후보생 중에는 타지역 거주자도 있고, 익산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후보생들도 있다. 이에 익산시의 부사관학교가 소통해 설립 가능한 이번 여행을 마련했다.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한 후보생들은 친절한 백제유산을 보유한 익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유적을 방문했다.

또한 하림공장 산업관광에 이어 대표 관광지 고스라를 방문하며 일정을 마쳤다. 짧은 시간이지만 익산의 역사,

문화,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아울러 19일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지역의 역사와 관광을 재미있게 풀어내 한(韓)문화 발상지 익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티투어에 참여한 한 후보생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익산의 마루사지유적, 왕궁리유적 등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부사관학교 후보생들의 익산 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여행을 통해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후보생의 가족과 후배들에게도 관광 매력 도시 익산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제2호 상점가 ‘가구거리상점가’ 지정

군산시 구도심에 위치한 ‘군산가거리 상점가(축성동 32-8번지 일대, 회장 배길만)’가 2019년 지정된 ‘강천상가 상점가’에 이어 군산시 제2호 상점가로 지정됐다.

상점가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 ·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당 상점가는 37개의 점포가 밀집해 한때는 성황을 이뤘지만 세월이 가면서 주변 상권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경영 애로를 호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산시 · 상권활성화재단 · 군산가거리 상인회 등 민 · 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왔으며, 마침내 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취업박람회 개최 10개 기업 70명 채용 목표

익산시 ‘다이어로움 취업박람회’가 정기적 구인 · 구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구직자와 기업 간 상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19일 청년시에서 올해 세 번째 다이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구직자에게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구인 · 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우수업체인 순수본 주식회사, 삼양식품(주), 광전지(주) 등 10개 기업이 참여, 생산직부터 영업관리, 영업직까지 70여 명 채용을 목표로 기업인사담당자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간 1:1현장면접을 진행, 2차 개별면접 이후 최종 채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시의 각종 일자리 정책 및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타로카드를 활용한 취업상담, 퍼스널컬러 진단을 통한 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 제3일반산단 확장조성 박차... 보상절차 돌입

###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완료... 계약 체결 안내 서류 발송 20일부터 계약 진행...원거리 토지구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토지 · 지장물 보상 절차에 돌입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위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공문 등 관련 서류를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했다.

해당 서류에는 편입 토지와 산정 보상금 및 계약 체결을 위한 구비서류 등이 안내돼 있다. 보상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통한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원거리 토지구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협의계약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상 내용, 협의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바 있다.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남산 구영리

일대에 27만 2815㎡(약 8만평)규모로 기존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보상 절차와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후 2026년에 3산단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면 바이오 · 화학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관련 산업 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효과 등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생각을 깨우는 아침 창, 군산 혁신아카데미’ 개강

군산시는 시장 부시장 도의원, 시의원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시정책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생각을 깨우는 아침 창, 군산 혁신아카데미’(이하 아침 창)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개강했다.

‘생각을 깨우는 아침 창, 군산 혁신아카데미’는 2023년부터 시행된 혁신정책으로 시를 이끌어가는 정책 리더들에게 최신 트렌드와 관련한 명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제공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지방소멸 이차전지 스

마트농업, 로컬브랜딩, 조직문화개선, AI, 인문 · 철학 등을 주제로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처음 실시된 특강에서는 김영선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가 초청돼 올해 12월 시행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산업이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이기도 한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성장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령친화산업이란 노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72,333,000억원에 달한다.

김영선 교수는 고령친화산업의 국내외 전망, 최신 정책 및 산업 동향, 지자체의 역할 등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였고, 특히 기업 유치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군산시는 타 지역과 견주었을 때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술 혁신 · 연구를 고도화할 수 있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제안하였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백제문화체험관 개관... 시범 무료 운영

익산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백제 시대로 떠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시는 백제의 문화 · 역사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성된 익산백제문화체험관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익산백제문화체험관은 총면적 699.07㎡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전시실, 미디어아트 전시관, 다용도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지상 1층에 조성된 전시실에서는 왕 · 귀족 · 평민 등 다양한 계급의 백제 복식을 관람하고 실제로 백제 의복을 입어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마룻네컷 등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방문객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층에 마련된 다용도 휴식공간은 다도체험, 화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컴퓨터 활용패 체험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의상체험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